

여름캠프 미리 준비하면 즐거움 두 배

7~8월 다양한 여름캠프·템플스테이 개설

부모·자녀 함께 캠프 전 유의사항 체크

여름방학을 맞아 7~8월에 국내·국외 등 다양한 캠프가 개설된다. 불교계 역시 아이들이 콘크리트 숲을 떠나 산사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한다. 여름캠프를 통해 부모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불교예절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캠프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자녀가 캠프기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캠프활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캠프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참가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라는 답변이 많다. 간혹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캠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다. 일부 부모들은 아이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캠프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캠프는 아이가 스스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아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는 안내서를 잘 살펴보고 자녀가 관심을 보일만한 분야를 추천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청소년공

동체 나무숲 대표 무등 스님은 “캠프는 부모와 아이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이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는 캠프를 선택할 때, 반드시 아이와 함께 상의하고 스스로 원하는 캠프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불안한 마음에 친구나 형제를 함께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캠프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므로 되도록 혼자 보내는 것이 좋다.

◇캠프 준비는 자녀와 함께

캠프를 떠나는 자녀의 준비물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준비물 목록을 만들고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두면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쪼렷 매거나 잃어버려 고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알레르기성 체질이거나 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면 캠프 기간 중 복용할 약물 등에 대해 자녀에게 유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응급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또 인솔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아이가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양선영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실장은 “지난 해 캠프 참가자 중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다. 아이의 부모님이 약복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특히 장애를 지닌 학생일 경우 부모님이 직접 유의할 점을 알려주면 캠프에 빨리 적응하고 다른 참가자들과도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캠프선택은 자녀 의견 존중

되도록 혼자 보내 자립심 길러야

준비물·복용약 등 자녀에게 교육

캠프후 체험담 나누며 참여도 체크

◇캠프 후 반드시 아이와 대화해야

캠프에 돌아오면 캠프 활동과 느낀 점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 인솔 교사에게 아이의 캠프 참여도와 생활태도 등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캠프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해 스스로 캠프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캠프 경험을 활용보고서로 적어두면 훌륭한 여름방학 과제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유진상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청



방학을 맞아 다양한 여름캠프가 개설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캠프준비에 나서자.

소년팀장은 “불교스카우트 캠프를 비롯해 각 캠프마다 참가 후 봉사활동 시간이나 다양한 포상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 더욱 유익한 캠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스마트폰에 담긴 韓 비구니 문화

봉녕사, 어플 ‘스마트 봉녕’ 제작... 4개 국어 서비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국 비구니 승가 문화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조계종 봉녕사(주지 자연)는 7월 9일부터 한국 비구니 불교 문화 세계화의 초석이 될 ‘스마트 봉녕’ 어플리케이션(사진)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 비구니 문화를 세계에 알리자”고 했던故 세주당 묘엄 스님의 유훈에 따라 제작된 ‘스마트 봉녕’은 봉녕사 승가대학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담당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서비스되는 ‘스마트 봉녕’은 봉녕사의 다양한 문화제와 건축물을 3D파노라마로

문화제·건축물 3D로 감상

묘엄 스님 영상과 사진검색 가능

만날 수 있으며, 묘엄 스님의 생전 영상과 사진 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 봉녕사가 제작하는 (봉녕지)와 봉녕사승가대학의 교육 자료들도 열람할 수 있다. 신도들에게는 ‘스마트 봉녕’을 통해 시중의 주요일정을 알람으로 즉시 알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게 ‘스마트 봉녕’의 장점이다. 대다수 세부 콘텐츠들이 쉬운 설명으로 이뤄졌으며 ‘상세보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 정보도 습득할 수 있다.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중생들이 모두 안락하며 고통도 모두 다 소멸되어 마음에 큰 기쁨을 내도다”

‘스마트 봉녕’은 마켓을 거치지 않아도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주소만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애플 마켓(iOS),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어플 개발에 대해 봉녕사측은 “‘스마트 봉녕’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한국 비구니 불교 문화를 읽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능과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도 재교육...신행 역량 강화에 필수”

제48차 포교총책연찬회, 신도재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신도들의 평생 신행이력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찰의 신도재교육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의 신도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8차 포교총책연찬회를 개최하고 사찰에서의 신도 재교육에 대한 폭넓은 방안들을 모색했다.

“신도교육체계의 흐름과 재교육 방안”에 대해 기초발제한 포교원 신도국장 노후 스님은 2011년 제·개정된 신도관계 중법령을 바탕으로 신도교육체계와 이에 따른 발심-행도-부동-선해-품계제도를 살펴보고, 신도 재교육 전반의 과정 속에서 사찰 신도 재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에 설명했다.

노후 스님은 “신도들이 사찰운영위원회에서 활동 하려면 최소 부동품계 이상을

받은 신도가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며 “종단 소집 집체 교육 연수 4회 이상, 교구별 신도임원연수·연합법회 및 행사 8회 이상, 포교원 인가 재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연수 8회 이상, 재적사찰에서의 법회 및 신행활동 3년 이상 참여하면 포교원이 추진하는 부동품계를 수여할 수 있다”고 신도재교육 확산을 주장했다.

이에 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신도재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동해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은 “막연히 불교 교리교육, 법회참석 등으로 재교육을 강조해서는 새로운 불자나 기존의 불자들에게 폭넓은 관심을 갖게 하기 쉽지 않다”며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해, 각자의 가정과 회사에서의 신행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불교화 되는 것이 하나의 재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신도품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역량이 주어지지 않는 신도는 말씀을 일으킬 수 없다”며 “종단과 각 지역사찰에서 분명한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신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각 사찰마다 신도여건과 수행여건이 달라 신도의 수가 많건 적건 여건상 세세하게 정리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불자들의 수행방편이 다양하고 정진하는 수행력이 다른 관계로 내면의 불사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공정하게 신도품계 제도로 담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김남수 불광사 기획실장은 “신도교육 및 관리의 측면에서 ‘부동품계의 관리 행정이 포교원 및 사찰 행정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재교육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의 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더 넓은 삶의 지혜 얻었어요”

MBC 노조 조합원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 성료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MBC 노조 조합원 및 가족 8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MBC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이 지리한 파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템플스테이로 달랬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MBC 노조 조합원 및 가족 8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파업으로 고생하고 있는 MBC 노조 조합원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심신 치유를 위한 수행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등 수행자들의 삶을 경험해 보는 한편 장미화 된 파업으로 지친 심리 상태를 돌아보고, 이를 정화할 수 있는 그림 치유 시간을 가졌다.

또, 부모와 함께 참가한 자녀들을 위한 연꽃 만들기, 인경체험 등 체험활동과 스트레스 정도 측정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강 스님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불가에서는 그릇된 짓의 나쁜 과보를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일부러 그릇된 짓을 하는 이를 역행보살(逆行菩薩)이라고 한다. 지금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역행보살이라 여기고, 더 힘을 내어 바른 삶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MBC노조 조합원과 자녀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사회통합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109개 운영 사찰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초청한 템플스테이 체험행사와 특별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입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스통(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7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7월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